

##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상상 변주곡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입니다. 올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착실하게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경제성장과 함께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열정은 세계 여러 나라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년이 되는 올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여러 사회단체와 인사들의 뜻을 모아 <6월항쟁20년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위대한 여정을 되새기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주화 20년 문화 20년 - 상상 변주곡>은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그 뜻이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987년 이후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지난 20년을 성찰하는 일은 드물었다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대목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할 영역이 될 것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87년 민주화 운동은 권위주의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역사의 전환점이었으며 그 정치적 열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낡은 제도와 관습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정치 관습이나 행정 제도만 바뀐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제도의 개혁은 시작일 뿐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문화적 측면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가 활용이나 공연 관람 같은 문화 소비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서로 다른 취향이 존중받으며 각 세대마다 자신들의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문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의 양극화 현상도 비단 경제 발전만으

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내면세계의 풍요로움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문화적 요소가 우리의 민주주의가 도달해야 될 종착역일지도 모릅니다. 중앙과 지역이 서로 존중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공존하며 저마다의 가치관과 성향이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민족사의 문제나 인류사적 보편적인 문제에 대해 창조적으로 연대하는 문화적 차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절실한 문제를 깊이 토론하는 자리가 바로 '민주화 20년 문화 20년 - 상상 변주곡'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격변과 다양한 문화 흐름을 꼼꼼히 성찰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격조 높은 토론을 해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기획을 원만하게 진행해주신 문화단체 <폴로워은집>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격려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진지했던 토론회의 성과가 이렇게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독자들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더 많은 민주주의'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 기쁩니다.

2007년 12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 세 웅